귀하게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몸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새해 저의 하루는 비만과 호주제 문제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 TV와 미지로 아카데미에서 〈내몸과 화해하기-살풀이 속풀이〉 강의를 하다보니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대주의 근성과 외제 특히 미제 밝힘증은 못말릴 수준이지요. 위험한 근육경련 환각작용 최음제가 들은 수입약을 들여다 다이어트 약이라고 팔아먹은 업자가 잡히기도 하구요. 청소년의 비만이 3년새 50%나 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전에 아버님 고향의 초등학교 운동회에 간 일이 생각납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만국기가 걸려 있고 마을 어른들과 면장님이 천막친 단상에 앉아 있는 풍경은 그대로 였습니다. 건강하게 그을린 어린이들은 정말 신나게 잘 달리더군요. 반면에 도시 학교 운동회에선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걸어가고 장애물 넘기는 옆으로 슬그머니 비켜서 피해가는 아이들이 한 반에 5-6명은 돼 보였습니다.

설연휴에 '바람과 사라지다' 영화를 또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스칼렛이 기둥을 잡고 서있고 하녀가 콜셋을 조여주는 장면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허리가 18인치 였던 것이 출산후 20인치가 되었다며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영화나 TV는 우리에게 살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염려해서가 아니고 단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쇠심을 넣은 속옷으로 가슴을 묶고 허리를 조입니다. 이름하여 기능성 브래지어와 거들로 가격도 놀랄만 하지요.

한쪽은 정말 체중조절이 건강을 위해 필요한데도 외면하고 반대편에선 해선 안될 사람까지 나서서 밥을 안먹는 거식증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살이 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보다 피골이 상접하도록 바짝 말라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가 훨씬 가엾습니다. 무엇이 그사람을 저토록 벼랑 끝까지 내몰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먹는 거식증이나 먹겠다는 욕망에 시달리는 폭식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존중받아야 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개인의 몸이나 외모에 타인과 우리사회의 부당한 무례와 억압은 가히 차별 수준을 넘어서 폭력에 가깝습니다. 특히 남성들에 비해서 한국 여성들은 거의 '외모 지상주의'에 상처받은 희생자들입니다. 이것도 '호주제'의 피해중의 하나라는 혐의가 있지요. 가령 남성은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뚱뚱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쩐지 '중후해 보인다' '관대하고 너그러울 것 같다' 는 편파적인(?) 덕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여성의 문제가 되면 이건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보여 줍니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둔하다'로부터 시작해서 '용서할수 없다'라는 사회의 암묵적 질책과 수모를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통통한 남자 어린이는 '장군감'이되고 '믿음직하다'는 격려 받습니다.

하지만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아이의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애가 좀 쪘네. 살빼야 되겠다"는 말을 풀이죽어 옆에서 죄지은 듯 듣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뜨거운 다이어트 광풍을 보면서 자신은 물론 특히 남의 소중한 몸과 마음에 대해 우리는 너무 무례하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남에게도 귀하게 존중받을 개인적 삶의 조건에 대해선 충분히 배려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